

‘과학자가 하는 일은 일반인이 몰라도 된다. 일반인들이 난해한 과학에 대해 관심 가질 리 없고, 관심이 있다 해도 설명해 보았자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과학은 학문이다. 학문은 자기 완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과학자는 학문 완성이라고 하는 학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한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가졌던 과학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다. 그래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과학자는 과학자가 아니라고까지 거침없이 평가절하했다.

우리 주위엔 지금도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과학자들이 의외로 많다. 과학대중화에 관심가진 과학자를 폄하하고 과학자의 능력을 오로지 연구논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요즘은 학문을 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 모든 학문이 사회와 유리될 수 없으며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연구는 그 결과를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은 양 날을 갖고 있는 칼과 같다.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가공할 정도이다. 물리학의 양자역학 등 순수 학문이 원자력시대와 핵폭탄을 만들어 냈고 전자기학의 연구는 오늘의 반도체와 컴퓨터시대를 낳았으며 생물학이 생명현상까지 다루는 유전공학시대를 열었다. 연구실에서의 초기연구 마저도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았다. 과학대중화는 과학기술이 갖는 양면성을 이해하고 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선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정보와 지식기반사회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회와 경제의 시스템마저 과학기술의 바탕 위에 이룩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일은 정보와 지식기반사회

를 맞이함에 있어 과학대중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17세기 산업혁명은 과학기술 관련 지식이 글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널리 보급됨으로써 경제와 사회발전을 가속시켰다. 그래서 일반대중이 글을 빨리 깨우친 유럽 여러 나라가 그 동안 세계를 이끌어 왔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1세기 정보와 지식기반사회는 과학의 무지에서 깨어난 국민과 국가가 주도해 간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학대중화는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

하다. 특히 자원이 없고 국토가 협소한 데다 인구가 많은 우리의 경우 국민을 과학의 무지로부터 일깨우고 의식과 행동을 과학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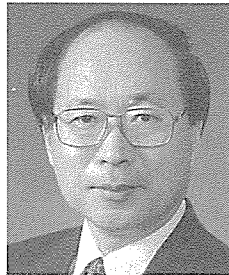
육열이 높고 두뇌가 우수하며 부지런한 인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자원을 어떻게 빨리 과학의 무지로부터 일깨워 창조와 합리·효율이라고 하는 과학정신을 생활화하느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과학대중화는 말 뿐이다. 정부가 과학대중화사업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형식에 그쳤다. 과학대중화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과학대중화를 주로 과학 관련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다는지 하는 과학정책의 한 방편으로 생각해왔다. 이는 과학계도 마찬가지였다.

과학자는 물론 정부도 과학대중화 인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장 과학자의 과학대중화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교수의 능력평가에서 과학대중화 업적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속히 터야 할 것이다. ①

발상의 전환 이광영칼럼 ②

과학자와 과학대중화



李光榮
(전북대 자연대 초빙교수)